



## 조선대 김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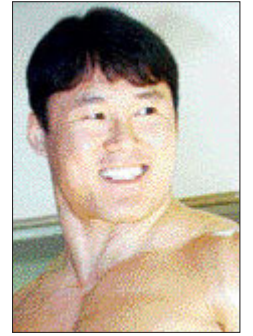
# 쇼! 태권왕

### 남 62kg급... 비 고춧가루 찍고 우승

김주영(20·조선대)이 2006 도하 아시안게임 태권도 남 62kg급에서 나란히 '금빛 발차기'를 날렸다. 김주영은 10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스포츠클럽 다목적홀에서 열린 대회 태권도 경기 사흘째 남자 62kg급 결승에서 고춧가루(필리핀)를 4-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김주영은 8강에서 칼리드 알리 알리피야(비레인)를 맞아 2라운드 1분4초 만에 9-2 점수차(7점) 승을 거둔 데 이어 준결승에서도 부 안 투안(베트남)에게 3라운드 28초 만에 7-0 점수차승을 따내는 등 화려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한국 태권도의 '신예 병기'로 부상했다. 올해 세계대학선수권 3위에 오른 뒤 코리아오픈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며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김주영은 마차 폰톤(태국)과 16강에서도 7-3으로 앞선 3분15초에 상대 공격을 뒷차기로 받아 팔에 부상을 입히며 RSC승을 이끌어 냈다. 해남 출신으로 해남 현산초등학교 3학년 때 취미로 태권도를 시작한 뒤 광주체육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선수의 길로 뛰어든 김주영은 받아 치는 것 보다는 먼저 발을 뻗는 공격적인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다. 김익철 조선대학교 코치는 "김주영은 국제 경기 경험은 많지 않지만 순발력과 지구력, 체력이 좋고, 특히 상대의 경기 운영을 급세 꿰뚫고 공격하는 테크닉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국제 무대에서 첫 승을 거둔 김주영은 "매번 지기만 해 이번 만큼은 꼭 우승하고 돌아가겠다고 작정했다"며 "이젠 내년 세계선수권대회, 2008년 올림픽을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새로운 각오를 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김주영은? 해남 현산초 → 광주 체육중 고... 순발력 뛰어난 공격형

## 광주시청 김명훈 보디빌딩 은메달



올해 미스터코리아 김명훈(35·광주시청·사진)이 2006 도하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김명훈은 10일 카타르 도하 알다나 체육관에서 열린 보디빌딩 90kg급 결승에서 22점을 얻어 만점인 10점을 받은 타브리지 누리(카타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32점을 받은 하산 알사카(시리아)가 올랐다.

보디빌딩은 예선과 결승에서 각 7명씩 14명의 심판이 출전 선수 등위를 점수로 제출하는데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하고 5명씩 총 10명의 심판이 제출하는 등위로 점수가 매겨진다. 10점을 받으면 모든 심판으로부터 1위 판정을 받은 것이 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순위에서 낮아진다.

목포 출신인 김명훈은 광주서초중학교와 북성중·광주상업고등학교(현 광주동성고)-조선대-조선대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복근과 팔 근육은 세계무대에서 통한다. 김명훈은 지난 85회, 87회 전국체육대회 보디빌딩 라이트헤비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2005년 아시아보디빌딩선수권 라이트헤비급 금메달을 따낸 '아시아 몸장'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태영 레슬링 첫 금 기세 오른 축구 4강행

### 마라톤 5연패 꿈 좌절

2006 도하아시안게임이 후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이 전통의 강세 종목인 레슬링과 태권도 등 투기 종목에 앞서 일본 추격에 나섰다.

한국은 10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계속된 아시안게임 레슬링에서 첫 금을 수확한 데 이어 '국기' 태권도에서 금메달 2개를 보태 하룻동안 금메달 3개를 추가했다.

이날 아스파이어홀에서 벌어진 레슬링 첫날 경기에서는 그레코로만형 중량급의 '늑각이 다크호스' 한태영(27·주택공사)이 96kg급 결승에서 이란의 마수드 하셀 자데를 2-0으로 제압했다.

카타르스포츠클럽 다목적홀에서는 또 다시 '금빛 발차기'가 번쩍었다.

김주영(조선대)은 남자 62kg급 결승에서 고춧가루(필리핀)를 상대로 역시 월등한 기량을

을 펼치며 4-1로 승리했다.

여자 55kg급 결승에서는 김보혜(21·삼성 에스원)가 호앙하지양(베트남)을 2-0으로 제압, 한국 태권도에 이번 대회 여섯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그러나 박경훈(22·한국가스공사)은 남자 84kg급 결승에서 요세프 카리미(이란)에게 3-4로 패해 은메달에 그쳤고, 여자 72kg급의 이인종(24·삼성에스원)은 동메달에 머물렀다.

펜싱과 당구, 보디빌딩에서도 은메달 1개씩을 추가했다.

남자 플레쉬 개인전 결승에 나선 '불사조' 이천웅(상무)은 허벅지 부상속에 후훈을 발휘했으나 일본의 오토 유키에게 8-12로 저은메달에 머물렀다.

여자 포켓 8볼 결승에서는 김가영(인천당 구연맹)이 대만의 린유안준에게 6-7로 저준우승을 차지했고, '미스터 코리아' 김명훈(광주시청)은 보디빌딩 90kg급에서 2위에 올랐다.

구기종목에서도 모처럼 승전고개 잇따라 터져 나왔다.

28년만에 아시안게임 남북대결을 벌인 한국 축구는 8강전에서 김치우, 염기훈, 정조국의 연속골로 북한을 3-0으로 완파하고 4강에 진출했다.

스포츠시티에서 열린 남자농구 E조 최종전에서는 연장 접전 끝에 홈팀 카타르를 87-81로 누르고, 중국과 8강에서 맞붙게 됐다.

아시안게임 6연패에 도전하는 남자 핸드볼은 이날 F조 최종전에서 쿠웨이트에 26-32로 졌지만 일본과 골득실에서 앞서 조 2위로 4강에 올랐고 여자하키는 말레이시아를 4-0으로 꺾고 3승1무1패가 됐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마라톤에선 아시안 게임 5연패의 꿈이 좌절됐다.

이날 카타르 도하 알 코니시 해안코스에서 열린 남자 마라톤 42.195km 레이스에서 개최국 카타르의 케나 출신 마라톤러 무바라크 하산 사미(26)가 2시간12분44초(비공식)에 결승선을 끊어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의 지영준과 김이용은 중반 스피트를 한 사미와 2위 그룹을 따라잡지 못해 메달권 밖으로 밀려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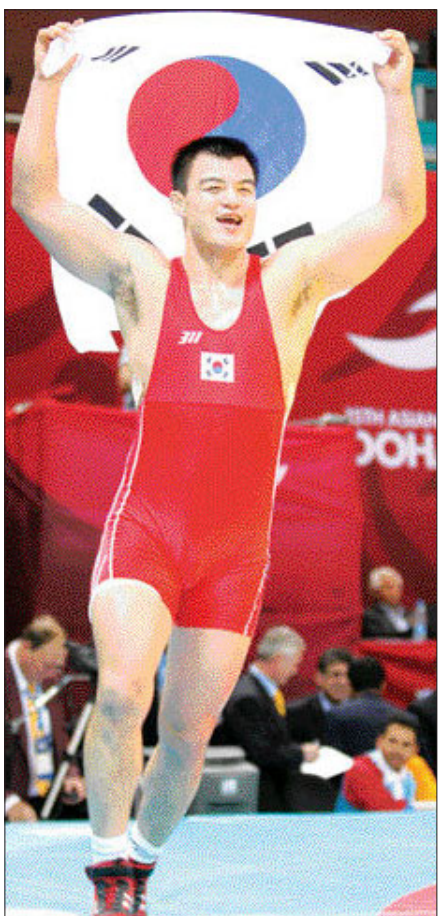
한편 이날 오후 8시 현재 금3, 은4, 동메달 6개를 추가한 한국은 메달 집계에서 금27, 은33, 동57개를 기록해 2위 일본(금34, 은41, 동48)과 금메달 격차를 7개로 유지했다.

중국은 금 109, 은 59, 동 30개로 독주를 계속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0일 오전 카타르 도하의 알리안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축구 남·북전에서 한국 염기훈(중앙)이 팀의 두번째골을 성공시킨 뒤 동료들을 부둥켜 안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새벽 카타르 도하 아스파이어홀에서 열린 도하아시안게임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96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한태영이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선대 김덕현 금빛도약 기대

### 오늘부터 세단뛰기



한국 육상의 가장 유력한 금메달 기대주 김덕현(21·조선대·사진)이 11일과 12일 2006 도하아시안

안게임 남자 세단뛰기에서 황금빛 도약에 도전한다.

김덕현은 이미 '마의 17m 벽'을 넘어 세계 25위권에 진입했다. 올해 아시아에서 그보다 더 멀리 뛴 선수는 중국의 리양시(17m12)뿐이다.

몸과 5cm, 1년만에 30cm 가까운 기록 신장세를 보인 김덕현이라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차이다. 홈팀 카타르의 경찰관 도약 선수 압둘라지드 한디도 복병이다.

열쇠는 테크닉과 스피드.

김덕현과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3주 전지훈련을 하고 지난 3일 도하에 온 박영준 한국체대 교수는 "스피드와 테크닉을 집중적으로 길렀다"고 했다. 그는 "그냥 세 번 뛰는 것 같지만 각 동작마다 특성이 다르다. 덕현이가 3단계 연결 기술을 제대로 터득했다"고 전했다.

두 번째 희망적인 대목은 스피드. 세계 정상급 선수라면 발구름을 할 때 속도가 초속 10m에 도달해야 한다. 100m 10초에 뛰는 '순간 스피드'가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한 마디로 '바람의 속도'를 내야 강력한 도약을 할 수 있다. 보통 45m 도움닫기를 하는 김덕현은 늘 스피드가 부족했다.

전날 벌고 출신 시골 소년은 고교 시절 하체 웨이트(스쿼트)를 단 한 개도 해볼 수 없을 만큼 '약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프에 관한 한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났다.

김덕현은 "긴장을 즐기면서 뛰겠다. 어차피 긴장할 거라면 그 자체를 즐기는 게 낫다"고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